

2021학년도 프롤로그 모의고사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천적 원리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아니라 도덕적 논의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나): 윤리학은 어떤 이상적인 도덕을 구축하고 정당화할 가능성을 모색하기보다 현실적 도덕을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해야 할 사실의 집합이어야 한다.

- ① (가):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
- ② (가): 윤리학은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③ (나): 윤리학은 도덕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에 주력해야 한다.
- ④ (나): 윤리학은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윤리 문제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
- ⑤ (가), (나):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2. 갑 사상이나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선의지가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어떤 결과를 낳아서가 아니다. 선의지는 비록 본래 의도를 실현할 힘이 부족하다 해도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를 지닌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을: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

- ①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 가치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② 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함을 간과한다.
- ③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임을 간과한다.
- ④ 쾌락을 계산할 때 쾌락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3. 갑, 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하는 데 손쉬운 비결은 없다. 그것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은 대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만민법에 의해 배제된다.
 을: 인권 유린이 없거나 절대 빈곤 상태가 아니라 해서 개인을 돕는 일에 관계하지 않는 국제 정의의 원칙은 옳지 않다. 우리는 지구상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기본적 필요조차 충족되지 못한 개인들을 도와야 한다.

- ① 갑: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이 원조의 목적이다.
- ② 갑: 원조 주체는 질서정연한 빈곤국에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야 한다.
- ③ 을: 원조를 통해 모든 사회의 경제 수준을 동등하게 조정해야 한다.
- ④ 을: 모든 사람은 빈곤 해소를 위해 동등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
- ⑤ 갑, 을: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된다.

4.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정보 창작자에게 배타적인 소유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더 많은 지적 재산을 생산할 수 있다.
 을: 모든 저작물은 인류가 생산한 정보의 집약체이며 공공재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물의 사유화는 정보 격차에 대한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신약이나 치료 기술 개발에 있어 동물 실험은 의학적 목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인간의 기대 수명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을: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기술 개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는 동물들을 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이들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갑: 현재로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만한 신뢰도 높은 대안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과 실험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실험의 결과를 적용할 때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의료 기술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큼니다. 또한 컴퓨터 모의실험 등 동물 실험을 대체할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 ① 의료 기술 개발은 인간의 기대 수명을 연장시켜주는가?
- ② 동물 실험은 신약과 치료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하는가?
- ③ 동물 실험은 의료 기술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인가?
- ④ 동물 실험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에 한해서 진행되어야 하는가?
- ⑤ 신약 개발 결과는 어떠한 실험 과정 없이 인간에게 바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6.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축함은 그 자체가 이미 거주함이다. 건축함은 건물을 세우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죽을 자로서 매일 거주한다는 그 본질적 의미를 깨달아 실존적 삶 전체를 돌보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건축함인 것이다. 죽을 자로서 인간은 다양한 건축함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세계 안에 있음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

- ①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 ②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영원불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③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본래적이고 타율적인 삶을 살게 된다.
- ④ 건축함은 단순히 거주할 건물을 세우는 것만을 의미한다.
- ⑤ 진정한 거주함은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타인을 살인한 자는 사형을 당해야만 한다. 그것이 그를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끄떡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가혹 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을: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고통의 반복적 인상에서 비롯된다. 시민들에게 범죄자가 노역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형보다 더 효과적인 형벌이다.

<보 기>

ㄱ. 갑: 인간성 정식에 따라 살인자의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ㄴ. 갑: 범죄자는 자율적으로 형벌을 의욕했기에 처벌받는 것이다.

ㄷ. 을: 형벌로 인해 얻는 이익이 형벌로 인한 해악보다 커야한다.

ㄹ. 갑, 을: 형벌은 공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간단히 정치와 윤리의 갈등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 성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의 요구이다.

- ① 집단 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 ②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 개인의 선의지는 불필요하다.
- ③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절대적인 모순 관계에 있다.
- ④ 집단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
- ⑤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적 힘 역시 커진다.

9.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 B, C의 행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법을 어기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는 자신의 빈곤 해결을 위해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조세법에 반발하며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테러를 일으켰다. • B는 합법적으로 제정된 정책에 반대하면서 자국민과 단결하여 즉각적으로 촛불 집회를 전개하였다. • C는 사상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 법에 반대하면서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비폭력적으로 시위를 전개하였다.

*A, B, C는 거의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보 기>

ㄱ. A는 차등의 원칙에 대한 부정의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지 못했다.

ㄴ. B는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함을 파악하지 못했다.

ㄷ. C는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다수의 정의관에 호소할 수 없음을 간과하였다.

ㄹ. A, C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주관적 신념에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들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기업은 주주들의 권익 보장에만 전념해야 한다.

을: 기업 역시 공동체의 일부이므로 기업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윤 추구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노동자와 소비자의 이익, 환경 보전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 기>

ㄱ. 갑: 기업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ㄴ. 갑: 기업은 주주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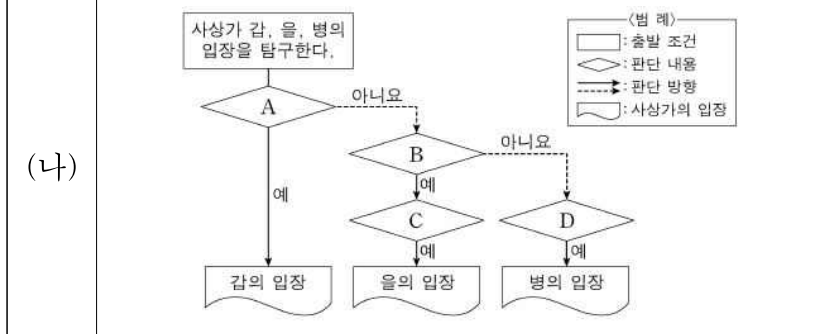
ㄷ. 을: 기업은 공익 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

ㄹ. 갑, 을: 기업은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가)의 사상가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곧 이러한 동물들과 관련된 감사의 정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을: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선(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변화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종(種)을 재생산한다.
 병: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보기>
 ㄱ. A: 이성이 없는 존재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가?
 ㄴ. B: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가?
 ㄷ. C: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가?
 ㄹ. D: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위한 인간의 개체 수 조절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칙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 ①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② 세대 간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③ 과학 기술이 가져올 희망을 토대로 새로운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
 ④ 인간은 인류의 존속을 조건적인 명령으로 인식해야 한다.
 ⑤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 장영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이다.

13. 갑, 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하나의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가 정의롭게 된다. 교환이나 참견은 나라에 파멸을 가져다주는 일이다.
 을: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뽑아 쓰고, 덕이 없고 무능한 사람은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그만두게 해야 한다. 힘든 일은 누구나 싫어하고 이익은 누구나 좋아하므로 예로서 일을 나누어야 다툼이 없을 것이다.

<보기>
 ㄱ. 갑: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ㄴ. 갑: 통치자 계급의 자유로운 사적 소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ㄷ. 을: 직업 선택에서 타고난 신분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
 ㄹ. 갑, 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임금과 대신이 악기를 만들어 음악 연주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흠을 굶어모아 악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된다. 임금과 대신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국가는 어지러워진다. 관리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창고나 나라 곳간은 부실해진다. 농부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콩과 조가 부족해진다. 부인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천과 비단은 많아지지 않는다.

- ① 음악은 재물을 낭비하여 민생을 위협한다.
 ② 음악은 정서의 순화와 언행의 교화에 기여한다.
 ③ 음악은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한다.
 ④ 음악은 백성이 처한 어려움을 잊게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⑤ 음악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15.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 이외에는 어떤 안전 대책도 존재하지 않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 있는 것보다 막강한 권력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공공의 칼에 의해 이행이 보장되지 못하는 계약은 단지 빈말과 허풍에 불과할 뿐이다.
 을: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합권을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보기>
 ㄱ.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가?
 ㄴ. 계약을 위배한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에게 있는가?
 ㄷ.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존재하는 자족적 공동체인가?
 ㄹ.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지배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